

스크린·드라마 속 감초 '1인 방송'



대도시관 1인 방송



'검블유' 속 1인 방송 BJ 운동주



'위대한 쇼' 속 치킨집 1인 방송

영화와 방송에서 크리에이터 혹은 1인 방송 진행자가 필수 감초로 활약한다.

최근 다양한 극에 등장하는 1인 방송 플랫폼과 진행자는 시대적 트렌드를 보여줌과 동시에 시청자를 대신한 응원단장, 주인공의 친구, 갈등 해결사 역할을 도맡는다.

고층 빌딩을 오가며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전개와 이상근 감독의 절제된 연출력, 주연 조정석, 윤아와 '명품 조연' 고두심, 박인환, 김지영 등이 열연해 900만명 이상의 관심을 모았다.

'엑시트'에서는 용남(조정석 분)과의 주(윤아)의 탈출 과정을 드론으로 촬영해 전국으로 중계하는 장면에서 대도시관, 율령, 슈기 등 스타 크리에이터가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극 중 크리에이터들은 주인공들의 탈출 과정을 지켜보는 시청자 개인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2019년 대한민국이라는 현실과 트렌드를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이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크리에이터들을 제외한 데 대해 "트렌드를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세대가 많이 활용하고 이슈가 되는 장치들이기 때문에 소재 면에서 풍부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여름 방영한 tvN 수목극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이하 '검블유')는 실

'엑시트' '검블유' '위대한 쇼' 극 중 주요 소재로 등장

시간 검색어를 둘러싼 포털사이트 업계의 고민,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와 젠더 감수성이 돋보였다.

'검블유'는 큰 틀을 지키면서도 최근 IT 업계 화두인 동영상, 1인 방송까지 극 속에 녹이면서 디테일한 재미를 살렸다.

'탕수육 이모티콘'에서 시작한 '부먹'(소스를 부어 먹는 것)과 '찍먹'(찍어 먹는 것) 논란을 이용해 포털 업체 '바로'의 대표 민홍주(권해효 분)가 소셜미디어에 사과 영상을 게재하는 것으로 더욱 큰 화제로 만들어가는 장면, '차현(이다희)-표준수(김남희)-BJ 운동주(조혜주)'를 잇는 삼각관계 등은 현대인 생활 깊숙이 자리한 동영상 서비스를 보여주기엔 충분했다.

'검블유'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BJ 운동주 캐릭터에 대해 '생각 없는 듯 보이지만 그녀는 시청자들이 자신의 무엇을 소비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지난 8월 말부터 방영 중인 tvN 월화극 '위대한 쇼'는 전 국회의원 위대한(송승현)이 국회 재입성을 위해 문제투성이 사납매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벌어지는 이

야기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이 된 캐릭터들이 '쇼'를 펼치는 이 극 속에서도 1인 방송의 역할을 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허위 비방 게시글로 정수현(이선빈)의 부모가 운영하는 치킨집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10대 남학생인 한탁(정준원)은 "나 같으면 실시간으로 생방하겠다"라고 말한 데서 치킨집 모바일 라이브가 시작된다.

지난달 17일 방송에서는 모바일 생방송과 거리가 있을 것 같은 중년 부부가 닭을 튀기며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줘 젊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중년 부부의 모바일 생방송이라는 의외성과 꾸밈없이 소통하는 모습 등 1인 방송의 주요 특징을 잘 녹여내면서 치킨집이 인기 명소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작가, PD, 진행자 등 전문가들이 방송을 만들어가는 장면과 치킨집을 운영하는 소시민이 모바일 방송을 쉽게 접근하고 재미를 붙이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점도 흥미롭다.

한 방송가 관계자는 5일 최근 1인 방송이 주요 작품 속 감초 역할을 하는 데 대해 "멀티미디어 세대 전용물로만 여겨졌던 영상 콘텐츠가 최근에는 전 세대가 즐기는 콘텐츠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광주의 가을밤 음악에 물들다

KBS 광주방송총국 7일 콘서트 '청량'

광주의 가을 밤을 다채로운 음악으로 수놓는 특별한 야외 콘서트가 열린다.

KBS 광주방송총국이 7일 오후 7시 30분 광주방송총국 야외 광장에서 콘서트 '청량 2019'를 연다. 이번 콘서트는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15년 넘게 진행해 온 가을 음악방송이다.

이날은 '아모르파티' 등 곡으로 유명한 김연자와 함께 JK 김동욱, 박시환, 안예은 등 가수가 출연한다. 또 록 그룹 노라조, 여성 보컬 듀오 바버렛츠와 아이돌 그룹 오마이걸, 지난 8월 말 컴백한 디보이즈 등도 함께 무대를 꾸민다.

이날 무대는 박정수 PD, 최민임·김선영 작가 등이 참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연자



오마이걸



JK김동욱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성연쇄살인 2부 8.5%

SBS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화성연쇄살인사건 특집 시청률이 8%를 넘어섰다.

6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5분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 화성연쇄살인사건 특집 2부 '악마의 얼굴'은 시청률 8.5%를 기록했다. 지난주 방송한 1부 7.8%보다 높은 수준으로,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을 다룬 지난 3월 30일 방송도 시청률이 8%대였다.

전날 방송에서는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 씨의 여죄와 그의 진짜 모습을 추적했다.

청주 처제살인사건으로 잡힌 그가 당시 형사에게 한 말, 최근 대면조사 끝에 자백한 배경,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있기 전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을 정리한 '동일수법비교표' 등이 공개됐다. 이외에도 이씨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이웃부터 학창 시절을 아는 동창, 군대 동기,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한 재소자까지 10명이 넘는 지인으로부터 이춘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전날 방송은 사건 자체보다는 주로 이씨의 심리와 주변 증언을 파악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 지난 1부 때 비판이 일었던 선정성, 잔인함 등은 다소 줄었다.

동시간대 방송한 MBC TV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은 4.9%-4.7%, KBS 2TV 예능 '아이를 위한 나라'는 1.5%-1.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JTBC 금토극 '나의 나라'는 3.846% (이하 유료가구), TV조선 예능 '부라더 시스터'는 2.363%였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2019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경기 <LA다저스·워싱턴>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조선로코-녹두전(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기분 좋은 날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시리즈 55 정재영의 이슈IN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수영, 육상, 배드민턴, 태권도>	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인종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재)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모두 다 쿵따리(재)	00 2030미래리포트 보도다큐 '바다로 미래로' 30 고강건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썸바이벌 1+1(재)	00 5 MBC 뉴스 2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2019 KBO리그 준플레이오프 2차전 (LG:키움)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우기	50 태양의 계절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자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육탄방의 문제아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조선로코-녹두전	00 MBC 뉴스데스크	00 리틀 포레스트
11	00 더 라이브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다큐멘터리 3일(재)	05 문화콘서트 난장	2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10 비바 K리그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05 스포츠 다이어리 25 낭만클럽	40 나이트 라인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7:45 띠띠뽀 띠띠뽀(재)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크프라이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55 별일 없이 산다	19:00 스파이더맨
08:00 당동랑 유치원	14:45 물랑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띠띠뽀 띠띠뽀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00 TV로 보는 일작동화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09:00 출동! 슈퍼윙스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15 마사와 곰	15:55 출동! 슈퍼윙스(재)	(중국명상기행-남양독수리 상산)
09:30 원더볼즈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30 한국기행
10:00 지식의 기쁨	16:25 마사와 곰(재)	<그곳에서 단 하루 1부 나에게 가는 길>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랑 유치원(재)	21:50 EBS 다크프라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3:35 별일 없이 산다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파 피그(재)	24:24 지식의 기쁨(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7일(음 9월 9일 丁丑)

<p>36년생 지출은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48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지. 60년생 지극히 상대적으로 작용하게 되리라. 72년생 근원을 찾아본다면 새롭게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니라. 84년생 의외의 경로로 새어나가지 않을까 두렵도다. 96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낫다.</p> <p>행운의 숫자 : 01, 56</p>	<p>30년생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함을 명심하고 실행하는 것이 이롭다. 42년생 표준과 전통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겠다. 54년생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66년생 단 순한 형태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78년생 아예 보고 도통 본 채 하는 것이 속 편하리라. 90년생 머지않아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p> <p>행운의 숫자 : 56, 21</p>
<p>37년생 드러나지 않은 이면에 모순이 보인다. 49년생 본격적으로 주력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61년생 어떠한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중용의 도를 잃지 말자. 73년생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아야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85년생 임시방편 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97년생 파악은 하되 처리는 보류함이 유익할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90, 88</p>	<p>31년생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번잡하고 기득한 곳에 임하리라. 43년생 강구한다면 능히 방책을 찾게 되리라. 55년생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67년생 허비가 쌍곡 선을 그리며 질주하는 위상이니 가관이로다. 79년생 상호 연결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91년생 반쪽일 것이니 충분한 예견할 수 있으리라.</p> <p>행운의 숫자 : 08, 51</p>
<p>38년생 정성으로써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성사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50년생 당면한 일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도 함께 보인다. 62년생 마음을 달리 먹는다면 기분 상할 일이 아니다. 74년생 문제가 발생하리라. 86년생 길은 거칠더라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느니라. 98년생 초심을 잃지 않아야만 제대로 볼 수 있다.</p> <p>행운의 숫자 : 28, 22</p>	<p>32년생 기존에 진행시켜왔던 일에 온통 집중하자. 44년생 지나치다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 56년생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택하는 것이 낫다. 68년생 실행을 보류하고 자중하며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80년생 마음에 걸리더라도 집착하지 말고 대범하게 넘어가야 할 때이다. 92년생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진다.</p> <p>행운의 숫자 : 74, 25</p>
<p>39년생 긍정적인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1년생 현황에 집착하지 말라. 63년생 포용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리가 없으리라. 75년생 특별한 의미의 징후들이 속속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87년생 느낌이 오면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해야 뒤따라 없다. 99년생 장고해야만 내실 있는 결론에 이르리라.</p> <p>행운의 숫자 : 68, 85</p>	<p>33년생 관리만 잘 한다면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 45년생 대단한 것으로 임하지 않으면 중도 포기할지 모른다. 57년생 스스로 순서와 체계가 요청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 69년생 스스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방도가 없다. 81년생 재앙은 조그마한 데서부터 생기는 법이다. 93년생 당면한 일에 문제점이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도 함께 보인다.</p> <p>행운의 숫자 : 02, 89</p>
<p>40년생 급작스러운 단절이나 변화가 보인다. 52년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환의 고통이 상당할 것이다. 64년생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이가 생긴다. 76년생 변수를 보일 수 있는 판도이다. 88년생 오해의 소지는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00년생 뜻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현탄스러울 뿐이다.</p> <p>행운의 숫자 : 52, 04</p>	<p>34년생 새로운 인연이 보인다. 46년생 궤도만큼 해야 하는 마당에 이르렀다. 58년생 어려운 상황이니 만큼 두루두루 잘 살펴야겠다. 70년생 육식을 가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82년생 상대는 기본 포석을 깔고 접근하고 있느니라. 94년생 여유를 갖고 일단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p> <p>행운의 숫자 : 11, 57</p>
<p>41년생 너무 힘에 겨운 집이라면 내려놓아야 마땅하다. 53년생 구색을 다 맞추다보면 부담스러워진다. 65년생 주저하지 말고 가지 없이 버리는 것이 지혜롭다. 77년생 막연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느니라. 89년생 확실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결립들로 작용한다. 01년생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 어렵다.</p> <p>행운의 숫자 : 25, 10</p>	<p>35년생 주목 받게 된다. 47년생 사필귀정 하는 법이니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얻게 되리라. 59년생 마음을 비우고 대처했을 때 결과가 더 낫다. 71년생 때가 이르니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83년생 성취의 문이 열릴 것이다. 95년생 내기 지 않으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p> <p>행운의 숫자 : 29, 73</p>